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성중(윤현영),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기택(배숙자), 김길자, 김춘화, 김대훈, 박군자, 박순웅(이승애), 석형기(이희순B), 송부현(김영진), 유호근(손명화), 윤병호(양영욱), 윤정호(유옥자), 이상헌, 이종문, 이춘취, 이한웅 (김순옥), 정영심, 정옥순, 조옥자, 채만기(장은주), 채희춘(황영욱), 최미영, 최상결(이미향), 최성현(윤정자).(총26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경엽,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기택(배숙자), 김길자, 김순옥, 김원재, 김진희, 김현구(서재희), 박순웅, 박정현, 백성원(안지영), 손정아, 송부현(김영진), 윤영준(박진숙), 윤혜전, 이종문, 이한웅, 정영심, 정옥순, 채만기(장은주), 최상결(이미향), 베드로남전도회, 무명1.(총25명)

☞ **감사헌금**
 김성중, 문수경, 강영성(신화순), 김경태, 김병울(이영숙A), 김옥자, 김현구(서재희), 박부웅(최귀남), 박희영, 방현옥, 이필숙, 이인숙, 이춘취, 임만순(서영숙), 정기성, 정영심, 채만기, 채영엽, 황성연(홍금옥), 드보라여전도회, 무명5.(총25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김민성, 김정훈,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희영, 박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이춘호,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홍은민, 홍준민, 황영욱, 김민혁, 무명.(총41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21주 : 열왕기상 22장 1 - 53절 / 유다서			
주 일	열왕기상 21장 17 - 29절		
월요일	열왕기상 22장 1 - 12절	목요일	열왕기상 22장 41 - 53절
화요일	열왕기상 22장 13 - 28절	금요일	유다서 1장 1 - 10절
수요일	열왕기상 22장 29 - 40절	토요일	유다서 1장 11 - 16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준 방석대 윤병호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휘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호 산 나 : 김안나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대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대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대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 력 교 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 력 단 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5. 17 주일 예배 설교

<u>참된 그리스도의 일꾼</u>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3-30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를 모함하고 비난한 내용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항변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진리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강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향한 열려가 더욱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진리를 향한 열심하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입니다.

1. 진리를 위한 고난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받았던 여러 형태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당한 고난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사실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십대가 그 형벌의 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십대 이상은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일 한 대라도 넘어가게 되면 때리던 자가 도리어 매를 맞아야 했으므로 보통 서른아홉 대로 그치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는 로마인의 형벌이었지만 사실 로마인들에게는 그 시행이 금지되었던 형벌이었습니다. 매우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벌을 금했던 것입니다. 분명 사도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 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 로마인에게는 금지된 이 태장을 맞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들에 맞기도 하였고, 여행 중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며 더욱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책방과 필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갖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들을 감수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일꾼임을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바랐기에 바울은 기꺼이 그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감수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자요 사도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찬모를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고난도 감수하며 견디고 참으며 인내하고 이기며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2. 참된 일꾼의 관심사
 바울에게 있어서 23~27절에 언급된 여러 가지 고난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로부터 분쟁이나 타락, 거짓 교사들의 유혹 등에 관한 소식이 들려와 그 문제로 많이 고심했으며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려는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의 열려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운명하시기 직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는데,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을 열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본문 29절에서 “누가 악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선 시하되 나를 불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상급과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일꾼의 자량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31절에서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에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것을 자랑한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더욱 강조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란 신체의 허약함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한 연약함,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란과 모욕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힘이 미약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의 주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미약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성도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더욱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의 도움이 정말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가를 크게 소리 높여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국일꾼들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자랑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한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21

2015. 5.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흐르는 시내
A garden fountain A well of living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